

3월 25일(월) / 삼하 7-9장

▶**내용요약:**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말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건축은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형성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다윗은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여 갔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질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로서 다리를 절던 자이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선대하였다. 그의 이름은 무엇인가?

▶**생각하기:**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소개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로서 두 사람이 소개된 것은 그들과 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다윗 왕에게는 영원한 나라와 굳건한 왕위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3월 28일(목) / 삼하 17-20장

▶**내용요약:** 아히도벨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들을 정병들과 함께 쫓아가서 급습할 것을 압살롬에게 제안한다. 아락 사람 후새는 징발할 수 있는 모든 군인들을 모아서 압살롬의 지휘 하에 다윗 군대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제거하자고 한다. 압살롬은 후새의 모략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겼다.

압살롬의 부대와 다윗의 부대가 전투를 하게 되었다. 나귀를 타고 가던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이었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면서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다. 군대 장관 요압은 그 압살롬을 죽였다. 다윗 부대의 승리의 소식에 다윗은 기뻐하였다가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였다.

▶**질문:** 베냐민 사람으로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하여 다윗에게 반역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삼하 20장)

▶**생각하기:**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 가운데 하나이던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죽게 되었다.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폐망의 자리로 몰아갈 수 있다.

3월 31일(주일) / 왕상 4-7장

▶**내용요약:** 4장에는 솔로몬이 거느리고 있었던 고급관리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왕궁에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관리들도 있었고, 각 지역에서 관리들을 감독하는 열두 명의 감독관들도 있었다. 솔로몬의 통치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평화롭게 살았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두로의 히람 왕과 조약을 맺어 거기서부터 목재를 공급받았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전국에서

3월 26일(화) / 삼하 10-12장

▶**내용요약:** 왕들이 출전하는 때에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있었다. 그 때에 다윗은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관계를 가졌고, 밧세바는 임신하였다. 다윗은 참전 중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였다.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을 지키며 잠을 잤다. 다윗은 우리아가 전쟁이 가장 극심한 곳으로 가서 후방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다. 우리아는 죽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치셔서 결국 죽었다.

▶**질문:** 다윗이 헛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일로 진노하사 다윗의 집에서 무엇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는가?(삼하 12:10)

▶**생각하기:** 고난의 시기보다 평안의 시대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더욱 조심해야 한다. 다윗은 평안의 시기에 예루살렘 궁에서 느슨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간음과 살인의 죄에 빠지게 된 것이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평안의 시기일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3월 29일(금) / 삼하 21-24장

▶**내용요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은사는 전투의 은사,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와 시를 만드는 은사였다. 다윗에게는 또한 전쟁에 능한 수많은 용사들을 붙여주셨다. 그러므로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임 시에 일어난 업적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발생하였고, 칠만 명이 죽었다.

▶**질문:** 인구 조사로 인한 재앙이 다윗이 누구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 멈추게 되었는가?(삼하 24장)

▶**생각하기:**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전투의 은사와 붙여주신 수많은 장수들로 인함이었다. 리더가 자기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이루어진 성취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불러 모은 일꾼들은 삼만 명이요, 짐꾼이 칠만 명이요, 석수가 팔만 명이 있었다. 일을 감독하는 이들이 삼천삼백 명이였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칠 년이 걸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십삼 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였다.

▶**질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몇 년만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는가?(왕상 6장)

▶**생각하기:**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해야 할 때는 전투의

3월 27일(수) / 삼하 13-16장

▶**내용요약:** 다윗의 아들 압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과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졌다. 이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압논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 압살롬은 자신의 양들의 양털을 깎는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다윗의 왕자들을 초대하였다. 그 자리에서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서 압논을 살해하였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술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삼 년을 살았다. 다윗은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였다. 두 해가 지나도록 만나주지 않다가 압살롬이 왕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선처하였다. 이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었다.

▶**질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와중에도 이 사람의 모략이 무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삼하 15장)

▶**생각하기:**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다윗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무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응답 되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일을 놓치지 말자.

3월 30일(토) / 왕상 1-3장

▶**내용요약:**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세워져야 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하나였던 아도니야는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후임자로 세웠다. 다윗은 죽기 직전 솔로몬에게 말씀을 따라 지키며 왕의 사무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하실 것을 유언하였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묻자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러한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하나님은 이에 부귀와 영화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질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처리를 부탁한 장수로서 평화로운 시기에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장수는 누구인가?

▶**생각하기:**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라고 인정해 준 바가 있다. 솔로몬은 지혜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더 구한 것이었다. 사명 감당에 필요한 은사는 주저 없이 간구하자.

은사를 가진 다윗을 세우셨다. 그리고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평화와 성장의 시기에는 지혜와 총명을 겸비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을 자제와 건축에 참여할 일꾼들도 허락해 주셨다.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